



먼세업계  
흑자 전환  
고환율 '변수'  
니



Life

에이피알  
디바이스·화장품  
락인효과 전략  
L2



# 모던함과 자연의 조화... 차별함으로 완성한 일상 속 풍경

## 아파트의 미학(美學)

### 포레나 인천학익

생활·교육 인프라 뛰어난 학익지구  
절제된 조경으로 밀도 높은 공간 조성

중앙광장 한눈에 들어오는 통창 카페  
수경시설 내 원형 화단으로 포인트  
모던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주거환경

완만한 물결 곡선 활용한 특화 놀이터  
단란한 가족 온기 표현한 예술작품도



포레나 인천학익 단지 내 중앙광장  
'카페 브리즈'와 수경시설.

서울 지하철 1호선 주안역에서 버스로 15분  
가량 이동해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  
내리면 '포레나 인천학익' 아파트가 한 눈에  
들어온다. 단지 주변으로는 인하대사대부고와  
인천지방방법원, 인천지방검찰청 건물에 눈에  
들어온다. 교육시설과 법조타운이 자리한 인  
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는 오래전부터 생활  
인프라가 갖춰진 인천의 대표 원도심이다.

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'포레나 인천학익'  
은 완성된 생활권 강점을 앞세운 단지다. 향  
후 약 5000가구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할 학  
익지구 중심부에 들어섰다. 학익동과 주안동  
일대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 
인천 신혼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.

단지는 지하 2층~지상 최고 29층, 5개 동으  
로 전용면적 39~84㎡ 총 562가구 규모로 조성  
됐다. 이 가운데 2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인

다.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한화  
건설부진이 시공을 맡았다.

'포레나 인천학익'은 교통과 교육, 생활 인  
프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입지다. 문화IC와  
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 
진입이 수월하며, 미추홀대로를 이용하면 송  
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로도 편하게 이동  
할 수 있다.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이 가깝고  
오는 2028년 학익역 개통이 예정돼 있다.

교육 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. 연화초와  
인주초·중, 학익초·고, 학익여고, 인하사대부  
고를 비롯해 인하대학교까지 반경 약 1.2km  
안에 있다. 홈플러스와 CGV 인천학익, 인하  
대병원, 인천문화경기장 등도 가깝다.

단지에는 중앙광장 '카페브리즈'와 어린이  
놀이터 '메리키즈그라운드'가 조성됐다. 스쿨  
버스 정류장과 시니어클럽하우스 등 생활밀

착형 시설도 갖췄다. 커뮤니티시설인 '클럽  
포레나'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, G  
X룸 등 운동시설과 독서실, 문화공간 등이  
마련돼 있다.

한화 건설부문의 주거 브랜드 '포레나'는  
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브랜드 입지  
를 넓혀가고 있다. 포레나 인천학익은 2024  
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 주거서비스 부문  
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주거 서비스와 커뮤니티  
경쟁력을 인정받았다.

이 단지의 핵심 공간은 중앙광장 '카페 브  
리즈(Cafe Breeze)'다. 사방을 통창으로 마감  
해 유리 너머로 수목과 산책로, 수경시설 풍  
경이 펼쳐진다. 마치 정원 한가운데 놓인 카  
페에 들어선 듯 하다.

검은색 메탈 소재의 벤치와 테이블은 조형  
미를 더하면서도 절제된 인상을 풍긴다. 흰색  
건축물과 검은색 가구의 대비가 공간의 세련  
미를 부각시킨다. 티하우스 앞에는 야외 테라  
스 공간도 마련됐다.

카페 브리즈를 둘러싼 중앙광장은 넓은 수  
경시설과 함께 조성됐다. 짙은 색의 자갈은  
주변 녹지와 밝은 색의 티하우스를 더 돋보이  
게 한다. 수경시설 한가운데에 원형 화단을  
조성했다. 광장 주변 역시 다양한 수목으로  
둘러싸여 있다. 모던한 디자인으로 포레나 인  
천학익이 추구하는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을  
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.

놀이터는 아이들이 공간 자체를 탐험하고  
뛰어놀 수 있도록 설계됐다. 단지 중심에 대  
규모로 조성된 '더 그루브라임(The Groover  
hyme)'은 완만한 물결형 곡선을 활용한 지형  
특화 놀이터다. 평평한 바다 대신 오르막과  
내리막, 작은 언덕이 반복돼 아이들이 역동적  
으로 움직일 수 있다.

붉은색과 베이지색 바닥이 만들어내는 패  
턴은 사막 위에 바람이 남긴 물결 자국을 떠  
올리게 한다. 곳곳에 조성된 둥근 언덕은 모

래성을 쌓아 올린 듯한 모습이다. 아이들은  
다양한 구조물을 통과하며 자신만의 놀이 방  
식을 만들어낸다.

입주민 일상에 이야기를 더하는 예술 작품  
도 눈에 띈다. 최원순 작가의 '행복을 꿈꾸는  
가족'은 네 가족이 한 몸으로 연결된 모습을  
형상화했다.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로  
이어져 있음을 나타내며 부모와 아이들 형상  
이 단란한 가족의 온기를 전한다. 작가는 가  
족의 소중함과 행복을 꿈꾸는 현대인의 바람  
을 담았다. 자연형 정원과 어우러지며 단지  
공간에 따뜻한 감성을 더한다.

산책로를 따라 걸다 보면 포레나 프리스쿨  
과 북하우스, 시니어클럽하우스, 클럽포레나  
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날 수 있다. 건  
물과 정원, 산책로의 경계를 최소화한 것이  
특징이다. '클럽 포레나' 주변에는 가이즈카  
향나무가 자리하고 있다. 가지와 잎이 촘촘하  
게 자라는 형태로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분하  
며 조경에 입체감을 더한다. 공해와 환경 변  
화에도 강해 도심 아파트 조경에서 선호되는  
수종 가운데 하나다.

단지 곳곳에는 작은 공간에도 디자인 요소  
를 녹여냈다. 자전거 보관소 벽면에는 자전거  
를 타는 주민과 반려견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 
그래픽이 보인다. 일상 속 여유와 활력을 상  
징적으로 담아냈다. 짙은 청록색 벽면과 노란  
색 포인트 컬러가 어우러져 단조로운 지하 출  
입구 공간에 생동감을 더한다.

포레나 인천학익의 조경은 화려한 랜드마  
크를 세우기보다 주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설  
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. 중앙광장의 티하우  
스와 수경시설, 산책로와 커뮤니티 공간, 지  
형을 활용한 놀이터까지 각각의 공간은 독립  
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정원처럼 유기  
적으로 연결된다. 공간을 넓게 펼치기보다 밀  
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연과 휴  
식,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생활  
풍경을 구현했다.



/성채리 수습기자 cr56@metroseoul.co.kr



특화 놀이터와  
자연이 어우러진  
단지 전경.



최원순 작가의  
'행복을 꿈꾸는 가족'  
/성채리 수습기자

## 메트로 한줄뉴스



▲손흥민, 메시·호날두와 함께 북중미 월드컵 '레  
전드' 분류  
▲실력도 인성도 특급...LG의 선두 원동력, '오주  
장' 오스틴 /사진 뉴스스

▲김대원·김형근·이기혁·티아고, K리그 5월 선  
수상 경쟁  
▲황룡사 9층 목탑 속 비밀...경주박물관 '부처의  
사리를 모시다' 특별전

▲"국립극단 무대 설 배우 찾아요"...시즌단원 공  
개 모집  
▲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 국가유산 주제 수업안  
공모